



검찰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점 치닫는 현대車 수사

MK 소환 왜 늦추나

# ‘결정타’ 앞두고 호흡 고르기?

## 글로벌·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 주력 ‘실리 연기’ 회유책·여론 살피기일 수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귀국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소환을 앞두고 현대오토넷 관계자 소환조사와 5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표 3명 처리 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김재택씨 로비 의혹 수사의 지류였던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정점이 정몽구 회장과 정인선 기아차 사장 조사로, 이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본류인 김재택씨 사건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관심의 초점은 정몽구 회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귀국 즉시 소환조사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달리 정회장과 정인선 사장의 소환 시기를 귀국 후 일주일 이상 뒤로 잡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기존 글로벌스와 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7일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수사단계를 "(비수확 이후) 밥을 짓는 단계며 아직 뜸달일 단계는 아니다"고 비유하며 아직까지 비자금 수사가 핵심부로 치고 들어갈 단계는 아님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정몽구 회장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정 회장에서 현대차 비자금 용처와 관련한 의미있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전략일 수도 있어 보인다.

정 회장이 귀국 후 곧장 출국할 것이라 예상과 재벌 총수 부자(父子) 동시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모두 빛나간 것도 수사에 협조하는 총수를 예우해 비자금 용처 파악이라는 '실리'를 얻으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검찰은 정 회장 소환 이전에 충분한 자료 분석을 해두고 정 회장 부자를 상대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대오토넷 자료분석과 회사 관계자 소환 등 정치작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 기획관이 정 회장 조사와 관련해 "조사할 양이 많으면 한두 차례 더 부를 수 있는데 구애받지 않겠지만 가끔씩 여러 차례 부르지 않게 효율적인 수사일정을 짜겠다"고 말한 것은 정 회장 상대 조사내용이 많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대차 그룹 총

수에 대한 강경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고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수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채 기획관이 이번 수사를 두고 "정관계 로비 등으로 포커스를 맞춰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이용한 부의 축적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 회장 부자에 대한 강경처벌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발언이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유지하려 한 재벌 기업 가운데 SK와 삼성이 이미 처벌 받은 만큼 현대차 그룹 역시 사법처리 갈날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범죄 증거가 너무 명백해 검찰이 그냥 덮기 어려울 것 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의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 사업장 경영이나 수출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검찰이 왜든나미 수사 방식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호흡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검찰이 글로벌스와 현대오토넷 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느냐와 정 회장측이 비자금 용처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물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내달 24일까지 새국회의장 선출 여당내 물밑 경쟁 치열

국회법에 따라 임기만료 5일 전인 내달 24일까지 새로 선출토록 된 국회의장직을 놓고 여당 내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도전 의사를 밝힌 인물은 김덕규 국회의장과 임채정 의원 두 사람.

김 부의장이나 임 의원 모두 41년생 동갑으로 같은 고려대 출신이다. 국회의원 선수(選數)로는 김 부의장이 5선으로 4선인 임 의원보다 많고, 학번으로는 오히려 임 의원이 1년 빠르다.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적임이라며 국회의장직 수인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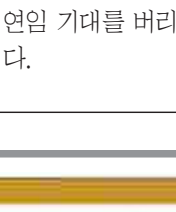


김덕규 부의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과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 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당이 필요할 때 '구원투수'를 마다하지 않은 임 의원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도 보이고 있다.

이런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기 2년을 맡아 왔던 김원기 국회의장도 내심 연임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임채정 의원

# 서울시장 선거판도 새국면

### 오세훈 前의원 한나라 경선 참여 맹형규·홍준표 후보와 3파전 양상 우리당 "지장없다" 폼하속 경계령

5.31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9일 오세훈 전 의원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맹형규 홍준표 후보간 2강구도로 전개됐던 한나라당 경선판도가 오 전의원의 막판 합류에 따라 3파전으로 재편되면서 한나라당내 경선은 물론 전체 서울시장 선거판도에도 적지 않은 지각변동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소속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두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한나라당 맹·홍 후보가 일정한 격차를 두고 추격하는 '1강(強) 2중(中)'의 초반 경쟁구도가 예측불허의 혼미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한사람, 또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언제까지나 뒤로 물러설 수만은 없다는 책임감에서 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했다.

16대 때 한나라당내 개혁작업을 주도해온 오 전의원은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에도 소장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맹·홍 후보간의 선두권 경쟁에 오 전의원이 가세하는 3파전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맹, 홍 후보측은 이날 오 전의원의 경선참여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의 흥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하고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들어갔다.

우리당은 특히 17대 총선직전 정계를 은퇴한 오 전의원의 복귀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비관하면서 집중 견제에 나서는 한편 강 전 장관의 인문경쟁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치는 떠날 때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다시 복귀할 때의 명분도 중요하다"며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구를 방문중인 정동영 의장은 "강금실 전 장관이 애기한 보랏빛 비전은 전국 16개 시도에 모두 해당된다"며 "퍼플 오션, 퍼플 카우라는 신경영기법을 통해 지역 분열주의로 대립된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금실 VS 오세훈

### 범조인 출신·시민단체 활동 유사 개혁진보-건전보수 이념성 차이



'강금실 대항마'를 자처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오세훈 전 의원(오른쪽)은 강 전 장관과 비교할 때 많은 유사점이 눈에 띈다.

둘 다 범조인 출신에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을 펼쳤다는 점, 그리고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참신함과 연예인 못지 않은 대중적 인기까지 골고루 갖췄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함 속에서도 판이한 면모를 볼 수 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을 지내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관심을 끌었고, 오 전 의원도 변호사 시절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를 바탕으로 TV 토론자로 인기를 얻었다.

다만 강 전 장관은 여성 첫 단독관사를 거쳐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을 지냈지만, 오 전 변호사는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한 뒤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의 시민단체 활동 분야도 조금은 달라 강 전 장관이 진보적 성

향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반면, 오 전 의원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오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미래연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관계 3법 입안을 주도, 건전보수 성향으로 인식됐다. 반면 강 전 장관은 민변과 법무장관 시절 개혁적 진보성향을 보여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대중 前대통령 '자서전 자문위' 구성

### 이상주 前부총리 위원장·임동원·박지원씨 등 참여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집필을 위해 국민의 정부 시절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자서전 자문위'가 구성됐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상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서전

자문위가 결성됐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자서전 집필작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 시내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 정부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 등을 초청, 오찬을

갖고 자서전 집필을 위한 정책 자료 정리를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자서전 자문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국민의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을 비롯해 복지노동부 수석 지낸 김유배 성균관대 교수와 이진순 전 KDI원장 등이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HE Bank 신한]**

4월 1일, 신한과 조흥이 하나 되어 더욱 크고 새로워진 신한은행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통합 신한은행이 전국 960개 네트워크를 갖추고 대한민국 금융을 지키는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손익융합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대표은행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노력하는 THE Bank, 신한은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에 지부신 THE Bank 신한은행